

국어의 특징과 국어 연구 방법론*

姜 昶 錫**

1. 머리말

1.1.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성격과 능력이 다르다. 따라서 한 개인이 진로와 목표를 결정할 때 타고난 성격과 능력을 잘 헤아려서 잘 맞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국어 연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즉 국어는 중국어나 영어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격이 아주 다른 언어이다. 따라서 국어 문법과 각종 현상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어의 기본 특징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적절한 연구 목표와 방법론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다.

국어의 특징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여부가 연구의 成敗를 좌우한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국어 연구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국어 연

* 이 글은 2013년 7월 9일에 개최된 제13회 국어연구회에서 구두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특정 주제에 대한 새로운 주장과 논증이 목적이 아니고 국어 연구 전반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솔직하게 제시하고 토론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논증 절차 없이 일방적인 의견 제시 형태로 서술된 내용들이 적지 않음을 미리 밝혀둔다. 또한 원고 수정 과정에서 발표 당시와 내용은 상당히 달라졌지만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사항은 발표 당시와 거의 동일하다.

**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주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둔 사례도 몇 차례 있다.

국어 연구를 통해서 이룩한 대표적인 성과로는 15세기의 訓民正音(諺文) 창제와 그 이전의 借字表記 그리고 현대의 한글 맞춤법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경우를 보면, 연구의 주체와 시기는 서로 달랐지만 몇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예컨대, 연구의 동기나 목표가 모두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던 점 그리고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외래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국어의 특징에서 필요한 답을 스스로 찾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1.2.

현대의 국어 연구는 양적인 면에서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도 과연 그만큼의 발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현대의 국어 연구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거둔 성과로 내 세울 만한 것도 얼른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대의 국어 연구가 독자적인 방법론을 추구하기보다는 구미의 언어학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것을 국어 분석과 기술의 기본 틀로 삼아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대의 국어 연구를 평가할 때는 그 점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고유문자를 갖지 못했던 시절에 주변의 기존 문자 즉 漢字를 借用해서 국어 표기를 시도한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연구 방법론이 거의 없던 현대 국어학의 초창기에 구미의 선진 언어학 이론을 도입하고 참고하려고 했던 것 역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제는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나 하는 점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15세기 이전의 借字表記는 당시로서 부득이한 것이었지만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국어는 중국어와 문법이 크게 달라서 중국어의 표기 수단인 한자와도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자표기의

오랜 경험을 통해 드러난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 사람이 바로 世宗이었다. 즉 세종이 국어에 맞는 독자적인 표기 수단과 이론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국어의 특징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한문이나 한자의 차용 경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¹⁾

필자는 현대의 국어 연구 상황이 세종이 고유문자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15세기 무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15세기가 한자를 이용한 국어 표기(吏讀)의 한계가 잘 드러나 있었던 시기였다면, 지금은 인구에에서 나온 언어학 이론을 이용한 국어 연구가 여러 가지 모순을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²⁾ 따라서 세종이 이두의 대안으로 諺文을 창제한 것처럼 현대의 국어 연구 역시 이제는 구미의 언어학 이론에 더 이상 의존하지 말고 국어의 특징에 걸맞은 독자적인 이론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한다.

1.3.

국어 연구의 독자적인 방법론 모색은 국어의 특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³⁾ 국어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그리고 과제와 방법론 등은 제각기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핵심 내용은 모두 국어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즉 국어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국어가 다른 언어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어 연구의 1차 목표와 과제 역시 국어의 독자적인 특징을 밝히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어의 기본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면,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1) 주지하듯이, 『訓民正音』 어제 서문은 “國之語音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으로 시작하고 있다.

2) 15세기에도 세종과 최만리 등의 학자들 사이에 吏讀에 대한 평가가 사뭇 달랐듯이, 현대의 국어 연구 상황 특히 구미의 언어학 이론 도입에 관한 판단은 학자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3) 모든 언어의 문법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국어의 특징'이라는 논제 자체가 열릴 수궁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편 문법'은 하나의 가설이나 목표일 수는 있지만, 충분히 검증된 전제로는 볼 수 없다.

각종 현상들의 분석과 이해가 아주 수월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어의 기본 특징 파악은 국어 연구의 핵심 과제인 동시에 방법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훈민정음 창제의 핵심 원리는 音節의 三分法, 즉 한 音(節)을 初聲과 中聲 그리고 終聲으로 분석한 것이었다. 이 음절의 삼분법에 대해서도 외래 이론 즉 중국의 聲韻學 이론의 수용 결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필자는 이것이 바로 국어의 특징에서 유래한 자생적인 이론이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聲韻學이 二分法(聲母+韻母)인 데 비해, 訓民正音 이론이 三分法이 된 것은 단순히 理論이나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중국어와 국어의 음절구조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⁴⁾

만약, 세종이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나 성운학 등의 이론에만 몰두하고 국어의 특징이나 吏讀의 실태 등 당면한 현실 상황에 대해 무관심했다면, 음절의 삼분법에 기초한 고유문자의 창제는 아마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최만리 등 집현전에 소속되었던 당대의 여러 학자들이 앞장서서 이 두를 옹호하며 세종의 언문 창제를 극구 반대했던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현대의 국어 연구 논저들을 보면, 初聲이나 中聲 등의 용어조차도 子音이나 母音으로 바꾸어 쓰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대 맞춤법의 원리는 주시경의 ‘本音 이론’에 근거한 것인데, 현재 한글 맞춤법의 규정 어디에서도 ‘本音’이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다.⁵⁾ 이런 현상들은 모두 구미 언어학 이론의 수용 및 지나친 의존이 가져온 부작용으로서 국어와 한글 그리고 맞춤법의 올바른 이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주지하듯이, 중국어의 ‘山(san)’은 a와 n이 분리되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山’이 국어 단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a와 n이 수시로 분리된다(산+아-)사니). 즉 중국어에서는 韻母를 다시 나누어야 할 이유(근거)가 없지만, 국어에서는 중성과 종성을 나누어야 할 이유가 명확한 것이다.

5) 현재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기술되어 있다(총칙 제1항). 줄고(1995)에서는 이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법에 맞도록’ 부분은 ‘본음을 밝혀 적는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 국어의 기본 특징

2.1. 국어의 특징과 번역

국어의 특징이란 다른 언어와 다른 점을 말한다. 따라서 국어의 특징은 다른 언어와의 비교(대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어와 비교 대상이 주로 되어온 언어로는 중국어(한문)와 일본어 그리고 영어를 꼽을 수 있다. 이 중 일본어의 경우에는 국어와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서, 국어의 특징을 말할 때는 주로 중국어나 영어(인구어)와의 차이점이 대상이 된다.

국어 화자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한자와 한문의 학습 등을 통해서 국어와 중국어의 차이를 切感해왔다. 그러한 경험이 借字表記를 거쳐 결국은 고유문자 창제로 결실을 맺게 되었음은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대에 와서는 국어 화자들이 영어 등의 인구어를 접할 기회가 아주 많아졌다. 즉 영어의 학습과 사용 그리고 번역 등을 통해서 국어와 영어의 비교가 자연스럽게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어와 영어가 아주 이질적인 언어라는 점은 국어학자나 영어 전공자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국어와 영어의 차이에 가장 주목해야 할 국어학자들이 그것을 간과하거나 애써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국어의 용례나 현상을 분석하고 기술할 때 인구어에서 나온 이론이나 용어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 한 가지 예로, 국어의 語順을 ‘SOV’라고 기술(설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주지하듯이, 국어의 어순은 중국어와도 다르고 영어와도 다르다. ‘SOV’라는 어순 기술은 얼핏 영어(SVO)와 국어의 어순 차이를 잘 포착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어의 실상을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

영어 어순을 ‘SVO’로 기술하는 것은 영어 문장이 ‘S, V, O’ 등의 성분으

로 구성이 되고 그 성분들 사이에 엄격한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어 문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들이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다. 즉 국어와 영어는 어순 이전에 문장의 구성 원리나 구조 그리고 성분 등이 모두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영어와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SOV’라는 어순 기술인 것이다.

국어 문장은, 줄고(2008) 등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주어-술어’가 아니라 ‘주제-설명’의 구조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⁶⁾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어와 같은 방식으로 어순을 분석, 기술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1)과 같은 예문에서 보듯이, ‘SOV’가 아닌 문장들이 아주 많다.

- 1) ㄱ. (다 떠나면) 소는 누가 키우나?
 / ? 누가 소는 키우나?
 ㄴ. 낫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 새가 낫말은 듣고, 쥐가 밤말은 듣는다.

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가장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국어와 영어 문장을 서로 번역해보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번역은 문장 하나만을 달랑 떼어내서 원문에 가장 가깝게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쓰이는 형태 그대로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문어체의 긴 문장보다는 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이는 간단한 문장 예컨대 인사말 등이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문장들이 쉽기도 하거니와 각 언어의 기본 특징들을 오히려 더 잘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다.

국어와 영어 사이의 번역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있는 사실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아예 非文이 되거나 아주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점이다. 다음 2)의 예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이것은 국어와 영어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⁷⁾

6) 국어 문장이 ‘주어-술어’의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뻥’이나 ‘땀’이 주식이 아니라는 말처럼 실제 용례를 잠깐만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학자나 문법서들이 이런 사실조차 애써 외면하고 있다.

- 2) ㄱ. 물은 셀프(입니다) → *Water is self.
 나는 자장면입니다. → *I am jajangmyeon.
 ㄴ. What's your name? →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May I help you → ?내가 당신을 도울까요?

결국 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을 서로 자연스럽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즉 원문에 있는 요소를 아예 빼야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원문에는 없는 요소를 새로 추가해서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작업 과정과 내용을 잘 정리해보면 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국어의 특징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2. 국어 문장과 문맥

영어 문장을 국어로 번역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 영어에서는 꼭 있어야 하는 필수성분이 국어에서는 오히려 빠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반대로 국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원문에 없는 요소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 3) ㄱ. How do you do?
 I am sorry.
 ㄴ.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3)의 ㄱ에 나온 ‘I’나 ‘you’는 주어로서 영어에서는 필수성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문장을 국어로 옮길 때 이들까지 그대로 옮겨서 ‘당신은 안녕하세요?’ 등으로 번역하면 아주 이상한 국어 문장이 된다. 따라서 ‘I’나 ‘you’는 빼고 ㄴ처럼 번역해야 하는데, 이것은 영어 화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이상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you’를 빼고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물어

7) 두 언어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예컨대, 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영어와 독일어 사이의 번역에서는 직역을 해도 대체로 무난한 경우가 많다.

면 누구의 안녕을 묻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어 화자들은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

물론, 국어 화자의 경우에도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나 질문을 받게 되면 누구의 안녕을 묻는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문장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발화 상황이나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어 문장은 문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만들어지고, 문장을 해석할 때도 반드시 문맥을 참고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⁸⁾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국어 화자들은 문장과 문맥이라는 두 가지 통로를 이용하여 의사를 소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문맥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되도록 문맥을 이용하고 문장은 그 나머지 꼭 필요한 요소들로만 구성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사실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즉 국어 화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이러한 사실을 굳이 언급하고 강조까지 하는 이유는 정작 현대의 국어 문법 논의에서 이 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어 문장이 특정한 문맥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주 많다. 바꾸어 말하자면, 국어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국어 문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어가 문맥을 최대한 활용하는 언어라는 점부터 반드시 정확하게 짚고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 4) ㄱ. 나는 볶음밥, 너는 자장면.
- 나. 저도 외동딸입니다.
- ㄷ. 침대는 과학이다.

국어에서는 4)의 예처럼 ‘A는 B다’와 같은 구조를 가진 문장이 가장 많

8) 여기서 말하는 문맥은 전후 문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 상황까지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 사용된다. 그런 문장들 중에는 ‘A is B’로 번역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주 많다. 4)와 같은 국어 문장은 언제나 동일한 내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쓰이는 문맥에 따라서 내용이 제각각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4)의 ㄴ과 같은 문장은 본인이 ‘외동딸로 태어났다’는 뜻만이 아니라 본인이 ‘외동딸을 두고 있다’는 말 등 문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내용이 될 수가 있다.⁹⁾ 결론적으로, 국어 문장은 문맥의 도움 없이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국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보면 그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실감할 수 있다.

2.3. 관계 종시와 경어법

영어 문장을 국어로 번역할 때는 원문에 없는 요소를 새로 추가해야 경우도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어법 관련 요소이다. 주지하듯이, 경어법은 일찍부터 국어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따라서 그에 관한 연구 논저 또한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말도 있듯이, 그동안의 논의들은 대부분 경어법을 국어의 다른 특징이나 현상들과 분리해서 다루어 온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국어의 기본 특징 확인이라는 관점에서 경어법 현상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하게 짚어보기로 한다.

국어의 경어법은 체계도 아주 복잡하고 역사적으로 변화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경어법의 영역인지 그 범위와 성격을 규정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영어나 중국어에서는 별로 따지지 않는 것을 국어에서는 중요하게 따지고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경어법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따진다고 말한 것의 대상은 주로 발화 관련 인물 즉 청자와 주체 그리고 객체이고, 따지는 내용은 화자 자신과의 관계 즉 높낮이나 親疏 등이다.

9) 사회적으로 특정한 발언의 의미나 의도를 두고 논란이 자주 벌어지는 이유도 국어 문장은 문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같은 문장을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에서는 청자가 누구이든 화자 자신을 대부분 ‘I’라는 일인칭대명사로 표현한다. 그러나 영어의 ‘I’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나, 저, 소인, 소자, 신, 짐’ 등 다양한 후보 속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야 한다.¹⁰⁾ 이것은 한국어가 1인칭이라는 객관적 사실보다 화자와 청자와의 상대적 관계를 더 중시하는 언어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현상은 2인칭이나 3인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즉 영어의 ‘you’나 ‘he’ 역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화자와 청자 혹은 화자와 제3자의 상대적인 관계를 잘 따져서 상황에 가장 적절한 단어를 골라야 한다.¹¹⁾

국어 화자들이 청자 등 발화 관련 인물들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따진다는 점은 앞에서 말한 문맥 중시 즉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문맥을 잘 따져서 문장을 구성한다는 점과 一脈相通한다. 경어법에서 말하는 청자 등 발화 관련 인물들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발화 환경 즉 문맥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화자는 말을 할 때 경어법이 꼭 아니라도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장 구성이나 어휘 선택을 달리 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예컨대, 성인 전문가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어린 아이나 비전문가에게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어의 경어법이란 국어 화자들이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문맥을 고려하는 데 그 중에서도 청자 등 발화 관련 인물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특히 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법 현상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2.4. ‘주제-설명’의 문장구조

주지하듯이, 吏讀는 한문의 어순을 국어 식으로 바꾸고 원문에 없는 조어나 어미 등을 첨가한 것이다.¹²⁾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도 어순을

10) 아들 앞에서는 ‘아버지’ 그리고 동생 앞에서 ‘형’으로 자신을 지칭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 모두 상대와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11) 영어의 ‘he’와 ‘she’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국어의 3인칭대명사 ‘그’와 ‘그녀’가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이유도 이들이 국어의 기본 특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조어였기 때문이다.

12) 현대의 콩글리쉬도 비록 공식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吏

바꾸고 원문에 없는 조사 등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영어의 主語를 번역한 명사 뒤에 추가되는 조사가 ‘-이/가’가 아니라 ‘-은/는’인 경우가 아주 많다는 점이다.

- 5) ㄱ. This is a book.
이것은 책이다.
?이것이 책이다.
ㄴ. You are my destiny.
당신은 나의 운명.
?당신이 나의 운명.

만약, 국어에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主語라는 문장성분이 존재하고 주어 뒤에는 ‘이/가’라는 조사가 붙는다고 한다면,¹³⁾ 5)와 같은 번역은 아주 이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줄고(2008)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국어 문장이 기본적으로 ‘주어-술어’의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즉 국어 문장은 ‘주제-설명’의 구조이고, 주제 뒤에 주로 붙는 조사가 ‘은/는’이라고 본다면,¹⁴⁾ 5)와 같은 번역이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국어 문장을 ‘주제-설명’의 구조로 보게 되면 앞의 1)에 예시했던 문장, 즉 ‘소는 누가 키우나?’와 같은 문장의 어순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즉 ‘소’는 본래 주어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가 일시적으로 도치되어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의 주제가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보다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다.

2.5. 필수성분의 유무와 의미의 명확성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영어의 다양한 통사 규칙들은 그것을

讀와 유사하다.

13) 대부분의 국어 문법서들이 그렇게 기술하고 있다.

14) 조사 ‘은/는’이 흔히 주제 뒤에 나타난다고 해서 그 기능을 바로 ‘주제 표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국어에서는, 앞에서 누차 말했듯이,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을 때 문맥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만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 이것은 발화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잉여적인 현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원리라고 생각한다.

- 6) ㄱ. (못 보던 웃인테) 샀니?
/ (아니) 얻었어.
ㄴ. (이제 그만) 갈까?
/ 조금만 더 있을래.

6)의 예에서 보듯이, 국어에서는 단어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문장도 아주 흔하게 쓰인다. 예컨대, 국어 화자들은 어떤 물건을 보면서 ‘샀니?’라고 물었을 때 그 문장에 꼭 있어야 할 어떤 요소가 생략되었다고 느끼지도 않고 의미가 모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샀니?’라고 물을 때는 말 그대로 ‘샀는지’의 여부만이 궁금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누가, 언제, 얼마를 주었는지’ 등은 궁금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문장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국어의 논리인 것이다.

- 7) ㄱ. (그거) 샀니?
/ 아니, 얻었어.
ㄴ. (그거) 네가 샀니?
/ 아니, 엄마가 사주셨어.
ㄷ. 네가 그 옷을 샀니?
/ ? (궁금한 게 뭔데?)

7)의 예에서 보듯이, 국어는 인구어와는 달리 주어, 목적어 등의 요소가 문장에 모두 나오게 되면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호해지거나 의미가 달라지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어 문장이 일정한 문맥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기본적으로 ‘주제-설명’의 구조를 가진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국어에서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을 모두 갖춘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고, 그 중 일부가 빠진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온당한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어 문장에는 필수성분이 아예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속단할 수 없다.¹⁵⁾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어의 필수성분이 그대로 국어에서도 필수성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영어의 필수성분이 국어에서는 오히려 빠져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어 문법서들을 보면, 주어의 생략을 말하면서도 주어 등을 필수성분이라고 기술하는 모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인국어 이론의 영향 탓도 있지만, 언어 현상과 자연의 물리적 현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자연 현상으로 볼 때는 어떤 동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동작의 주체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동작을 언어로 표현할 때는 주체까지 함께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영어가 전자가 속하는 언어라면 국어는 후자에 속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외에도 국어와 영어 사이의 번역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주 많다. 예컨대, 영어에서는 아주 중요한 ‘性, 數, 人稱’ 등의 문법범주가 국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 그리고 數量에 대한 인식이나 표현 방법도 두 언어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 등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¹⁶⁾

이 모든 차이들은 국어와 영어가 그만큼 이질적인 언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어와 영어는 세계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별개의 틀인데, 그 틀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연구가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인국어 이론에 매달려야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15) 필수성분의 존재 여부는 국어 문장이 어떤 성분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만 제대로 논의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6) 영어에서는 수량을 명사의 속성으로만 표현하고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하지만, 국어에서는 둘을 구분하지 않으며, 수량을 명사의 속성이 아니라 동사의 속성으로 인식,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관해서는 졸고(2009)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수 없다.

3. 국어 연구의 방법론

국어 연구의 올바른 방법론이 어떤 것인지는 그동안의 국어 연구사를 통해 이미 답이 거의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부분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현재 제대로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 몇 가지를 두서없이 제시해보기로 한다.

3.1. 명확한 연구 목적 설정

무슨 일든지 올바른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는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국어 연구의 경우에도 목적이 불분명하면 방법론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흔히들 국어 연구의 목적은 ‘국어의 實相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한 원론적인 말은 ‘연구’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연구 목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는다면, 연구 목적과 방법론의 구분조차도 쉽지 않게 되어서 자칫 연구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¹⁷⁾

현실적으로 ‘국어의 특징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곳은 아주 많다. 예컨대,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제대로 된 한국어 교재가 절실한 형편이다. 또한 국어와 외국어 사이의 번역 필요성도 날로 늘어나서 그것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 지침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한국어 교재와 번역 지침서 등은 제작 의지만 있다고 해서 만들

17) 구미 이론의 도입은 국어 연구의 방법론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종 목적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런데 구미 이론을 도입해서 무엇을 하지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칫 구미 이론의 도입 그 자체가 국어 연구의 목적인 것처럼 되어버린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어 연구가 제 기능을 충실하게 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국어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로 한국어 교재나 번역 지침서의 편찬 등을 설정해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국어 연구의 내용과 방향 등을 평가할 수도 있다.

국어가 모국어인 화자들은 국어를 배우거나 사용할 때 문법서에 거의 기대지 않는다. 즉 문장을 만들거나 해석할 때 직관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문법서의 내용이 실사 잘못된 것이어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어 교재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다. 예컨대, 한국어 교재에 ‘한국어 문장은 주어와 술어로 구성된다’고 써어 있으면 ‘한국어가 인구어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막상 한국어의 실상과 부딪히게 되면 교재 내용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3.2. 국어 연구사의 교훈

訓民正音의 창제 과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남기고 있다. 앞에서 는 주로 성공 사례만을 언급했지만, 세종의 훈민정음 관련 사업이 모두 성공으로 끝난 것만은 아니다. 주지하듯이, 훈민정음 창제와 더불어 세종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된 한자음 교정 사업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한자음 표기를 위해 표준 한자음을 제정한 것(『東國正韻』 편찬)까지는 올바른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책정된 표준 한자음이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한 이론에 치우친 것이었다는 점, 그 점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訓民正音』의 편찬 사업 역시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물론, 『訓民正音』은 현재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최고의 國寶로 꼽힐 만큼¹⁸⁾ 국내외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훈민정음이 창제된 직후부터 세간에서 현실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訓民正音』이 아니라 「諺文字母」였다. 후자는 현재까지 누가 언제 작

18) 『訓民正音』을 국보 1호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제법 많이 보인다.

성한 것인지조차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¹⁹⁾ 그러나 15세기부터 세간에 서 언문 교재로 주로 활용된 것은 분명히 전자가 아니라 후자였고, 현대 맞춤법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후자였다.

세종이 諺文을 창제하고 그것을 널리 보급하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언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필요한 교재였을 것이다. 그런 용도에 잘 부합하는 것이 바로 「諺文字母」였다. 그러나 『訓民正音』의 편찬 목적이나 용도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일반 백성들에게 새로 만든 문자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편찬했다고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다. 실제로 『朝鮮王朝實錄』 등에는 『訓民正音』이 편찬되었다는 기사(是月訓民正音成)만 보이고²⁰⁾ 그것을 언제, 어디서 몇 부나 간행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다. 또한 『訓民正音』을 간행해서 누가,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도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이처럼 국어 연구사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연구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외래 이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반대로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자생적인 방법론을 수립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세종이나 주시경의 경우처럼 ‘국어 표기’라고 하는 현실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외래 이론에 의존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국어 표기에 어떤 문자가 적합하고, 초성 문자는 몇 개가 필요한지 또는 종성 문자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답을 외래 이론에서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은 국어를 관찰, 분석하여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음절의 삼분법’이나 ‘본음 이론’ 같은 자생적인 방법론의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 「諺文字母」는 종종 때 최세진이 편찬한 『訓蒙字會』에 실려 있다. 그러나 최세진이 새로 지은 것은 아니고 당시에 세간에 유통되고 있던 내용을 옮겨 수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졸고(2014)에서는 「諺文字母」가 『訓民正音』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즉 최초의 언문 관련 문헌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20) 訓民正音이 완성되었다는 이 기사를 『訓民正音』 刊行이나 頒布로 해석하여 현재의 한글날(10월 9일)이 정해졌는데, ‘成’은 간행이 아니라 ‘편찬 완료’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3.3. 적절한 예문 선택

현대의 국어 문법 논의에서 논란의 대상이 자주 되는 것이 바로 例文의 적절성 여부이다. 국어의 특성을 제대로 밝혀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논의라면, 당연히 그 목적에 잘 부합하는 즉 국어의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문장들을 최우선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려운 예문들이 곤잘 등장하기 때문이다.

국어 문장을 영어로 직역하면 아예 非文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대로 영어 문장을 국어로 직역할 경우에는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문장으로서의 일단 성립이 되는 경우가 많다.²¹⁾ 다음 8)의 예처럼 번역투 문장으로 불리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 8) ㄱ. 당신은 커피를 좋아하세요? (Do You like coffee?)
- ㄴ. 나의 이름은 김철수이다. (My name is Kim, Cheol-Su.)
- ㄷ. 좋은 시간을 가지세요. (Have a good time.)
- ㄹ. 나는 이발사에게 나의 머리를 잘랐다. (I had my hair cut by the barber)

8)과 같은 문장은 실생활에서 널리 쓰이지는 않지만 비문 즉 국어 문장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²²⁾ 따라서 8)과 같은 국어 문장들을 예문으로 삼아 국어 문법을 논하게 되면 당연히 국어와 영어의 차이가 제대로 드러날 수가 없다. 이것은 필자의 단순한杞憂가 아니라 실제로 국어 문법 논의에서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
- 21) 영어에는 여러 가지 통사 규칙이 있지만, 국어에서는 조사나 어미들이 그런 역할을 주로 대신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어에서는 조사를 잘못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非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22) 영어를 처음 학습할 때는 문장 하나만을 놓고 국어로 번역해가면서 익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드라마의 대사를 번역할 때와는 달리 실제 상황에서 그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어식으로 직역하는 경우가 많다. ‘그’와 ‘그녀’라는 3인칭대명사가 주로 쓰이는 것도 그런 경우이다.

- 9) ㄱ. 철수가 영화를 사랑한다.
 코끼리가 코가 길다
 많은 비가 내렸다.
 세 병의 술을 마셨다.
 ㄴ. 철수는 영화를 사랑한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비가 많이 내렸다.
 술을 세 병 마셨다.

국어에서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문장은 9)의 ㄱ이 아니라 ㄴ이다. 그러나 문법 논저들에서는 ㄴ과 같은 예는 애써 무시하고 ㄱ과 같은 문장들을 예문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자가 국어 자료보다 인국어 이론을 더 우선시하여 인국어에서 나온 이론을 가지고 국어를 설명하려고 할 때 특히 더 많이 나타난다. 예컨대, 국어 문장도 인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어-술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펴려고 하다 보니 국어의 현실은 외면하고 ‘A는 B다’가 아니라 ‘A가 B다’와 같은 문장만 예문으로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국어 연구에서 가장 먼저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대화나 글에서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문법 논의에 필요한 모든 예문을 연구자가 직접 만들지 않고 말뭉치 등을 조사하여 일일이 찾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자가 예문을 직접 만들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문장을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도 작가가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임의로 만들어낸 문장이고, 말뭉치의 자료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국어 화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문장들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²³⁾

결론적으로, 국어 문법 논의를 위한 예문은 연구자가 직접 만드느냐 아니면 남이 실제로 사용한 용례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장이 국어 화자의 직관으로 볼 때 정상적인

23) 말뭉치 자료 속에는 오히려 부적절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정확한 문장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장이나 아니냐 하는 점 그리고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에 적절한 문장이나 아니냐 하는 점이다.

4. 맺음말

구한말에 한글과 국어를 연구했던 주시경은 외래 이론의 도움이 거의 없이도 국어 표기의 새로운 원리(本音 이론)를 개발하고 독자적인 문법 기술 모델과 고유어로 된 문법 용어도 많이 만들어냈다. 그러나 주시경의 그러한 노력과 업적들은 현대의 한글 맞춤법을 제외하면 대부분 후학들에게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였다. 언제부터인지 국어학계의 연구 풍토는 구미의 언어학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것을 국어 분석이나 기술의 틀로 삼아야만 되는 것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영어를 조금만 학습해보면 누구나 금방 느낄 수 있을 만큼, 국어는 영어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다른 언어이다. 현대의 국어 화자들은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그것 역시 국어와 영어 사이의 현저한 문법 차이에서 비롯되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이다. 따라서 영어와 같은 인구어의 분석을 통해서 수립된 구미의 언어학 이론은, 마치 중국의 한자음 분석에서 나온 성운학 이론이 국어의 음절구조를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 않듯이, 국어의 특징이나 각종 현상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설명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 결코 될 수 없다.²⁴⁾

국어의 분석과 기술에 적합한 방법론의 모색은 국어의 기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어의 기본 특성은 인구어에서 나온 이론을 그대로 따르는 대신에 국어와 인구어를 직접 비교해보면 쉽게

24) 변형생성이론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일부 학자들은 이 理論으로 변칙동사 문제 등이 말끔하게 설명된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지금도 구미 언어학에서 나온 특정한 이론을 국어에 적용해서 시험해본 것만으로 마치 해당 국어 현상이 다 설명되고 오래된 숙제들이 해결된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답을 얻을 수 있다. 국어 연구사를 살펴보면, 그러한 방법으로 국어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독자적인 방법론을 수립하고, 그것을 통해 혁혁한 연구 성과를 거둔 전례가 이미 몇 차례 있다. 그러한 성공 사례와 반대로 실패한 경험을 잘 분석해보면, 국어 연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신항(1989),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_____(2010), 훈민정음 창제와 연구사, 도서출판 경진.
- 강창석(1986), 國語 敬語法의 본질적 의미, 울산어문논집 3, 31-54.
- _____(1992), 15세기 音韻理論의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_____(1995), 한글과 한글 표기법 이론의 체계화에 대하여, 국어학 25, 165-197.
- _____(2008), 국어의 문장구조에 대하여, 人文學志 제37집, 1-25.
- _____(2009), 국어의 수량 표현 문법 1, 인문학지 제39집, 25-45.
- _____(2010), 국어 문법의 특징과 語順, 『개신어문연구』 제31집, 5-30.
- _____(2011), 국어 문법과 주어, 개신어문연구 제33집, 47-76.
- _____(2012), 훈민정음 頒布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개신어문연구 35, 5-30.
- _____(2013), 국어 문장의 구조와 특성, 개신어문연구 37집, 5-39.
- _____(2014), 「諺文字母」의 작성 주체와 시기에 대하여, 언어와 정보사회 22, 27-52.
- 金完鎭(1984),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1-19.
- 안병희(2007), 훈민정음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기문(1971), 訓蒙字會 研究, 서울대출판부.
- _____(1974), 訓民正音 創制에 관련된 몇 問題, 國語學 2, 1-15.
- _____(1976), 최근의 訓民正音 研究에서 提起된 몇 問題, 진단학보 42, 187-190.
- _____(1998), 개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